광양시, 탄소중립 주도 '에너지 전담조직' 설치

수소·배터리·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새로운 성장동력·일자리 창출
일각선 '지방선거 앞둔 조직 개편' 오해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광양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미래 에너지 분야와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을 주도할 에너지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내외 에너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에너지산업과'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는 에너지산업과 신설을 통해 수소와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유치와 육성 등 광양시 미래 신성장 전략 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이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으로 이관되고, 재생에너지팀과 수소산업팀이 각각 신설된다.

에너지정책팀에서는 2차전지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전담하고, 재생에너지팀은 RE100 이행계획 수립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재생에너지 관련 보급과 산업 육성을 담당한다.

수소산업팀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 공모와 수소전문기업 유치 및 지원, 포스코와 연계한 수소사업 발굴, 수소 전용 항만과 광양만권 광역 수소 배관망 구축, 수소자동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업무 전반을 다루게 된다.

광양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 전남도·광양시·포스코 간 수소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시민의 날에 '2050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또 수소 시범도시 공모와 수소특화단지 조성, 수소 전문기업 유치 육성,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기존 업체의 업종 전환 방안 등을 담게 될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한다.

올해 수소자동차 250대 보급계획과 함께 4월에는 광양시 1호 수소충전소 준공에 이어 12월에 금호동 태금역 일원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며, 광양읍권에도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해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소산업 육성 지원 의지를 담고 뒷받침하게 될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4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2차전지 핵심원료 소재를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첨단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소와 2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한 좋은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에너지 전담부서 부재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에너지산업과 설치로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양시의 탄소중립 주도를 위한 에너지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차기 시 집행부 구성을 앞둔 상황의 조직 개편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귀무덤 봉환추진본부' 출범
순천 평화공원에 '안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이 앗아간 우리 조상의 귀·코무덤 봉환을 위한 순천지역 민간인단체가 출범했다.

귀무덤 봉환추진본부는 지난 30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귀무덤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때 조선 병사들과 양민들의 귀와 코 등을 전리품으로 베어오라고 명령해 일본 본토에 만들어진 무덤이다.

오카야마 비젠시, 쓰야마시, 쓰시마, 후쿠오카 등 5곳에서 조선인 귀무덤이 발견됐다.

순천에는 정유재란 당시 최후 격전이 벌어진 순천왜성이 있다.

귀무덤봉환추진운동본부는 지난해 해룡면에 조성된 평화공원에 귀무덤을 안치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귀무덤의 역사적 고증과 함께 추가로 귀무덤 찾기, 출판, 역사강연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농특산품 대형 유통사 입점 성과

멜론·흑찰옥수수 등 20건

곡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인 멜론과 흑찰옥수수 등 20건이 홈쇼핑 등 대형 유통사에 입점한다.

곡성군은 지난 31일 곡성군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농특산물 품평 상담회를 통해 20건은 입정 결정, 95건은 입점 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역 농특산품 전국 유통을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특산물 품평 상담회를 열었다.

상담회는 GS홈쇼핑, 농협, 전문 무역상사 등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가 초청됐으며 멜론, 흑찰옥수수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약 80여종의 다양한 가공 상품이 소개됐다.

또 지역 농특산물 생산·가공업체 40개가 참여해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입점 절차, 상품의 개선 방향, 각 유통사별 물류·위생·품질 기준 등을 상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의 농특산물은 높은 상품성에도 불구,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에게 상품을 선보일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시장이 급변하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최근 열린 농특산물 품평 상담회를 통해 흑찰옥수수 등 특산물 20건을 대형 유통사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곡성군 제공〉

이 관계자는 "대형 유통사 초청 현장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바이어들이 지역 특산품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며 "상담회를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보돼 추후에도 다양한 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경찰,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여수경찰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일 여수 도원초 정문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 학교폭력이 집중 발생되는 1학기 개학 시즌에 맞춰 김해룡 여수교육지원청장과 정성록 여수경찰서장, 청소년 선도 유관기관 및 교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수경찰은 학교폭력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며 피해 발생시 117 신고와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아동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수칙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학교폭력 백신은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특별한 문구 등으로 제작한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학생들에게 캠페인 내용을 친근하게 전달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정성록 여수경찰서장은 "신학기 초에 집중되는 학교폭력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역 안전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 해창만 '어류 폐사' 원인 밝혀질까

관리방안 마련 용역 실시…1차 조사서 원인물질 발견 못해

고흥군이 최근 해창만 간척지에서 발생한 어류 집단 폐사 원인 분석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해창만 담수호에서 숭어 등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고흥군은 시료를 채취해 남해수산연구소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약 성분 및 일반 독극물, 수질 등의 분석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병원체나 중금속 등 집단 폐사를 일으킬 만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흥군은 2차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대학 교수와 환경 전문가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봄 가뭄으로 일조량이 증가해 담수호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농작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담수호 주변의 수질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벌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보성군, 군민 도서 구입비 40% 지원

만13세 이상 1인당 최대 5만원

보성군이 군민 독서활동 장려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서 구입비의 40%를 지원하는 '전 군민 좋은 책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보성군민(주민등록상 만13세 이상 보성군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서점은 이용할 수 없고, 전남도 지역서점 인증서점인 '대교서점(보성읍 소재)'과 '동아서림(벌교읍 소재)'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해당 서점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구입가 기준으로 1인당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점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